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 도 유형문화재 된다

전북도, 지정 예고...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 모본으로 1774년 모사

전라북도가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주암서원에 있는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 1384~1455) 선생의 영정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가로 67.5cm, 세로 120.6cm의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은 보물 제594호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을 모본으로 1774년에 모사(模寫)된 것이다.

연촌 최덕지 선생은 본관은 전주, 자는 가구(可久), 호(號)는 연촌(烟村)·우수·존양(存養),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월당 최담의 아들로 최광지, 최득지, 최희지 등이 모두 그의 형제이다.

1405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감찰 등 삼사의 청요직을 거쳐 김재군수, 남원부사 등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 전남 영암의 영보촌에 퇴거하여 존양루(存養樓)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고, 1450년 예문관 직제학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사직하고 영보촌으로 돌아왔다.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은 '주암사우(舟巖祠宇) 봉안주록(奉安錄)'을 통해서 영정의 모사 시기를 알 수 있으며, 고려 말 공복(公服)에

해당되며 조선시대 전형적인 사대부 초상에서 보이는 독서하는 선비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의 모본인 보물 제594호 <최덕지 영정 및 유지초본>은 1452년에 왕명에 의해 도사(圖寫)된 것이다.

이후 1630년, 1713년, 1769년, 1774년, 1900년대에 각각 모사되었기 때문에 각 시기별 화법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암서원 최덕지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주암서원(舟巖書院)에는 연촌 최덕지, 압계 최연순, 율계 장급, 사촌 장경세 선생이 배향되어 있는데, 1984년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1774년 당시 '전조 연촌부군 영정 봉안서'를 쓴 최차익은 '여러 문중 사람들과 함께 (영정)를 모사하여 봉안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재물을 조금씩 모아서 6년 만에 영정을 모실 곳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당초 주암서원이 최덕지 영정을 모시기 위한 영당(影堂)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암서원 연촌 최덕지 선생 영정.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선정

최상훈 작가 '나전금음방함' 대상 선정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해 개최된 제25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으며, 수상작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심사에는 옷칠, 목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일반인 참가단 2명이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대상에는 최상훈 작가의 ▲'나전금음방함'이 선정됐다.

대상작 '나전금음방함'은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자개를 활용해 정밀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현장심사에서 최상훈 작가는 전통방법으로 거도를 사용하여 상사치기를 재연하고, 우리의 전통 문양인 귀갑,회포,국화문 등을 끊임없이 정교하게 시문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뛰어난 기능 보



최상훈 작가의 나전금음방함.

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울칠부문 금상은 임대영 작가의 '선의 조화(교철기법 목칠2단함)'로 선의 아름다운 곡을 교철기법으로 잘 보여준 작품이며, ▲같이부문 금상은 최용석 작가의 '복 짓는 날'로, 나무 고유의 모양과 생김새를 잘 살려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수상작은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남원 예루원 전시회에서 볼 수 있고, 5월 18일에서 24일에는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참여 예술인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5월 6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분야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2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내 헤리티지, 전라북도 생태관광, 예술가 자유주제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품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재단은 도내 주요 관광콘텐츠를 주제로 아트상품 개발을 통해 작가

의 상품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메일(guner7231@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창작활동 실적(최근 3년)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전문 작가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계획서

심사로 진행된다. 17명 내외의 예술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아트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량 강화 교육 등과 아트상품 개발비, 아트마켓 참여 및 홍보와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재단에서는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사업들과 판매망 확충과 개발상품 판매실적과 관리현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맞손'

한국전통문화전당-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 업무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14일 전당 4층 소회의실에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대표이사 김해영)과 전통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전통문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통문화 관광 정보와 콘텐츠 제공 및 활용 ▲한국전통문화전당

에서 실시하는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기로 했다.

김해영 대표는 "호텔과 전당은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머무는 전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공동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며 양 기관이 상호 윈윈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주를 찾는 천만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알려가게 계기가 되고, 나아가 '관광거점 도시 전주'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실버마이크' 전북권 공연팀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18일까지 이메일(jsilvermic@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지원 영상이며, 지원 영상은 공고 이후 촬영한 3분 이내의 영상이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모든 구성원이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구성해야 하며, 팀은 1인에서 10인까지 구성 가능하지만 사례비는 최대 5인까지 지급한다. 신청 분야는 대중음악(밴드, 재즈, 인디음악, 월드뮤직 등), 양

악·국악(성악, 관현악, 실내악, 풍중, 국악, 전통예술 등), 복합(연극,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으로 세 가지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타 주관기관의 '실버마이크' 공연팀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가 있는 날'에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권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실버마이크 공연팀에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내에서의 5회 공연과 선정 공연팀의 상호 교류를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팬텀 오브 더 크로스오버'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팬텀일부전의 '팬텀 오브 더 크로스오버'를 선보인다.

남·녀 혼성팔레타 그룹인 팬텀 일부전은 JTBC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유수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방송 출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오페라와 뮤지컬·국내외 초청공연 등 수많은 무대에서 화려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을 세련된 퍼포먼스로 더욱 빛나게 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테너 최용호, 송근혁, 뮤지컬

배우 민명근, 그리고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박지은이 출연하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영웅' 애니메이션 알라딘 OST,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축배의 노래 등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 OST, 팝송 등 다채로운 장르로 무대를 감동하는 도가니로 몰아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선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19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